

# 朝鮮朝 七星佛畫의 研究

車 載 善

## 〈目 次〉

I. 머리말	4. 第四 形式
II. 造成背景	5. 第五 形式
1. 佛敎七星信仰의 內容	IV. 朝鮮朝 七星佛畫의 樣式的 變遷
2. 佛敎와 道敎의 七星信仰 比較	1. 構圖
3. 七星信仰의 歷史的 展開	2. 形態
III. 朝鮮朝 七星佛畫의 形式 및 現狀	3. 色彩와 筆線
1. 第一 形式	V. 朝鮮朝 七星佛畫의 意義
2. 第二 形式	VI. 맺음말
3. 第三 形式	

## I. 머리말

佛敎가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는 과정에서 그 지역 재래의 土俗神을 護法神으로 포용하여 다양한 신앙형태를 지니게 된다. 우리나라의 불교도 마찬가지로 고유신앙과 습합하여 새로운 국민신앙을 이루었고 천오백년동안 어떠한 형태로든 土着化·韓國化되었는데 이러한 면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七星信仰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망인 壽命延長·求福 및 農耕社會의 유습에 의해 生子得男 등을 비는 칠성신앙은 우리 민족에게 너무나도 보편적인 신앙이다. 오늘날 한국의 불교 사찰에는 어디를 가나 대부분七星閣이 本堂 뒷편에 자리잡고 있으며, 本尊佛供 다음으로七星佛供신자가 많은 뿐만 아니라 약간씩 형태는 다르지만 전국의 民俗에도 두루 산재하여있다.

이러한七星信仰에 연유하여 불교에서 예배를 위한 그림으로 그린 것이七星佛畫이므로 여기에는 자연 우리나라 고유신앙인 民間信仰 및 佛敎와 道敎의 圖像이 한데 어우러져 있다. 이와같이 朝鮮朝七星佛畫는 巫·佛·道敎가 합쳐져 새로이 그려진 가장 韓國的인 그림의 하나로 매우 중요한 연구 과제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단편적인 연구가 다소 진행되었을 뿐 아직 집중적인 研究論文은 한 편도 나와있지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한국의 칠성불화연구에 대한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연구를 위한 기초를 세워보고자 한다.

## II. 造成背景

七星佛畫가 어떠한 배경에서 그려졌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먼저 經典을 중심으로 한 칠성신앙의 敎理的 내용을 고찰하여 본 후, 이를 道敎의 신앙내용과 비교하여 그 영향관계를 알아보고, 우리나라에서 칠성신앙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1. 佛敎 七星信仰의 內容

우리나라의 불교 사찰내에는 대부분 七星閣<sup>1)</sup>이 있거나 아니면 法堂의 한 편에 칠성불화를 걸고 七星壇이라 하여 민중의 신앙에 응하고 있다. 그 밖에 三聖閣이라 하여 山神·獨聖·七星을 함께 모시는 곳도 있는데 이 진각에서는 칠성을 대표적인 신앙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신앙형태를 보면 七星佛供을 드리거나 七星祈禱를 드리며 七星佛畫의 畫記에는 대부분 七星幀이라고 墨書되어 있다. 이와같이 殿閣이나 화기에 쓰여진 題나 佛供儀式<sup>2)</sup> 등의 명칭에서 대개 七星을 내세우고 있으나 엄밀하게 따져보면 熾盛光如來를 주존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칠성신앙에 대하여 살펴보기에 앞서 七曜星에 대한 명칭과 신앙내용부터 고찰하여 보기로 한다.

옛날 지구의 공전이나 자전에 대한 지식이 없을 때 지구를 제외한 모든 천체는 어두운 밤, 북쪽 하늘에서 밝게 빛나는 北極星(北辰星)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것으로 보아 북극성이 하늘의 중심이라고 여겨졌다. 이러한 북극성을 佛敎에서는 熾盛光如來로, 道敎에서는 紫微大帝로 신격화시켰다. 熾盛光如來는 이외에도 金輪佛頂·攝一切佛頂輪王·金輪寶界熾盛光如來佛·光聚佛頂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운다. 이 여래가 日月星宿를 권속으로 하는 尊이 된 것은 釋迦如來의 須彌山頂成道에서 큰 빛을 발하여 諸天曜宿를 굴복시켰기 때문이다.<sup>3)</sup>

그러면 熾盛光如來가 어떠한 신앙내용으로 숭배되었는지 經典에서 찾아보기로 하겠다.

「大聖妙吉祥菩薩說除災敎令法輪」에서는

“國界에서 日月이 薄蝕하고, 혹은 五星이 度를 잃어서 모양과 색이 다르게 변하고, 王者 貴人의 命宿를 陵押하며, 혹은 日月이 本命宮 중에 훼손되면 이 가르침의 息災護摩를 사용 하여라.…”

1) 七星閣외에도 北斗閣·三聖閣·金輪寶殿·北極殿·北極寶殿 등 여러가지 명칭이 쓰여진다.

2) ① 舉佛 ② 普召請眞言 ③ 由致 ④ 請詞 ⑤ 香花請 ⑥ 獻座眞言 ⑦ 勸供 ⑧ 四陀羅尼 ⑨ 禮懺 ⑩ 普供養眞言 ⑪ 普回向眞言 ⑫ 北斗呪 ⑬ 消災吉祥陀羅尼 ⑭ 願成就眞言 ⑮ 神闕眞言 ⑯ 精勤 ⑰ 原祝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濟州道篇), 1978, pp.78-81).

3) 「阿娑縛沙」第58 熾盛光卷 (澤本實, 『望月佛敎大辭典』, 世界聖典刊行協會, 昭和8年(1933), p.1846.

大疾病이 유행하고 鬼神이 난폭하여지며, 다른 나라의 병적이 침략하면 曼荼羅를 만들고 帝王이 매일 경건한 마음으로 친히 가호를 내릴 것을 발원 기도하면 반드시 승리를 얻고 적을 물리칠 것이다.”<sup>4)</sup>

라고 하였다, 또한 「佛說大威德金輪佛頂熾盛光如來消除一切災難陀羅尼經」에는

“이 陀羅尼經을 항상 깨끗이 하고 보호하면 팔만가지의 大不吉祥事를 없애고 팔만가지의 大吉祥事를 성취할 것이다.…”

이 다라니경을 依法受持하면 모든 災禍가 害할 수 없게 되고 災가 變하여 福이 되며 모든 吉祥을 얻게 된다.”<sup>5)</sup>

라고 하였다.이밖에 佛事를 행하고 法要를 시작할 때 七星이 道場에 강림하시기를 청하는 七星請에 의하면 熾盛光如來께서는 知慧가 비상하시어 모든 중생의 고생을 없애고, 壽福을 인간에게 내려주며, 天災를 소멸하고, 만가지 德을 이루어 延命益壽·無病長生·子孫昌盛하게 하여 준다. 또한 모든 어둠에서 널리 구하여 五福을 내려주고, 慈悲를 베풀어 群生을 이롭게 한다.<sup>6)</sup>고 하였다.

이와같이 熾盛光如來는 자연적인 재해나 적의 침략 등의 재앙을 소멸하여 吉祥을 얻게하고, 無病長壽·子孫昌盛·求福하게 하여 주는 부처로 신앙되었다.

그리고 치성광여래는 해와 달을 보살화한 日光遍照消災菩薩(日光菩薩)과 月光遍照息災菩薩(月光菩薩)을 左右補處로 하는데 조선시대에 질병퇴치 등과 함께 藥師如來의 성격이 강하게 띄워 험시보살도 일광보살과 월광보살이 된 듯 하다.<sup>7)</sup>

七星에는 南斗七星과 北斗七星이 있는데 여기에서의 칠성은 北極星을 축으로 하여 그 주위를 하루에 한번씩 회전하는 큰곰자리의 북두칠성을 말한다. 북두칠성은 원래 天文家와 道家에서 日月과 함께 중시되었던 星宿로, 그 명칭을 「佛說北斗七星延命經」<sup>8)</sup>에 보이는 七元星君·七如來와 비교해 보면 <表 1>과 같다. 이것은 密敎에서 북두칠성을 비교적 새롭게 받아들여 佛格으로 높인 것으로 칠원성군은 호칭에 있어 도교적 요소가 강하게 나타나며 本地佛로 볼때 七佛藥師<sup>9)</sup>와 관계가 깊은 것으로 보인다.

4) 『大正新修大藏經』 v19, 密敎部 2, No 966, p.342.

5) 上揭書, No 964, p.338.

6) 李能和輯述 李鍾殷譯注, 『朝鮮道敎史』, 普成文化史, 1929(1977), pp. 295-2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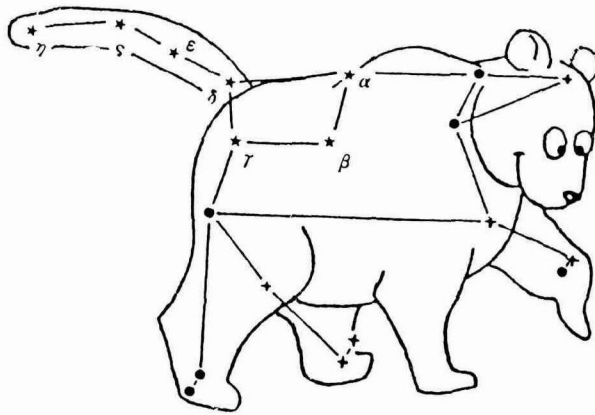
7) 文明大, 『韓國의 佛畫』, 悅話堂, 1977, p.102.

8) 『大正新修大藏經』 V20, 密敎部 3, No. 1307, p.426.

9) 「藥師琉璃光七佛本願功德經」에 의하면 약사 7불은 光勝世界의 善名稱吉祥王如來, 妙寶世界의 寶月知嚴光音自在王如來, 圓滿香積世界의 金色寶光妙行成就王如來, 無憂世界의 無憂最勝吉祥如來, 法幢世界의 法海大音如

〈表 1〉七星의 構成

순 위	七 星		七 元 星 君	七 如 來	
	(서양천문학)	(중국천문학)			
1	$\alpha$	Dubhe	天樞星	貪狼星君	東方最勝世界 蓮意通證如來佛
2	$\beta$	Merak	天璇星	巨門星君	東方妙寶世界 光音自在如來佛
3	$\gamma$	Phecda	天璣星	祿存星君	東方圓滿世界 金色成就如來佛
4	$\delta$	Megrez	天權星	文曲星君	東方無憂世界 最勝吉祥如來佛
5	$\epsilon$	Alioth	玉衡星	廉貞星君	東方淨住世界 廣達智辨如來佛
6	$\varsigma$	Mizar	開陽星	武曲星君	東方法意世界 法海遊戲如來佛
7	$\eta$	Alkaid	搖光星	破軍星君	東方琉璃世界 藥師琉璃光如來佛



그러면七星이 어떠한 내용으로 신앙되었는지를 經典을 통하여 알아 보기로 한다.

「北斗七星護摩秘要儀軌」에 의하면

“北斗七星은 日月五星의 精으로 七曜를 통괄하여 八方에 군림하고, 三天神을 비치며, 아래로 인간을 바르게 하고, 善惡을 맡으며, 福禍를 나누고, 群星이 朝하고 萬靈이 府仰하게 하니 만약 인간이 예배 공양하면 長壽 富貴한다.”<sup>10)</sup>

來, 善住寶海世界의 法海勝慧遊戲神通如來, 淨琉璃光如來이다. 이 7불은 약사의 同體이거나 別佛인데 經題에 藥師琉璃光七佛이라 하므로 앞의 여섯불은 약사의 分身이다. 그런데 破軍星의 本地佛이 약사유리광여래불이며 七如來는 七佛藥師의 이름을 짧게 줄인 것 같다.

10) 『大正新修大藏經』 V20, 密教部 3, No. 1306, pp. 424-425.

고 하였다. 또한 「北斗七星念誦儀軌」에서는

“만다라를 만들고 예배 공양하면 北斗八星<sup>11)</sup>이 기뻐하는 고로 勝位에 오래 있을 수 있고, 항상 안락할 것이며, 百官이하가 화목하며, 法이 아닌 것을 행하지 않고, 백성이 풍요하며, 국토가 안녕하고, 재난이 없으며, 異怪가 나타나지않고, 질병·사망이 일어나지않으며, 나라 안의 怨敵·群賊이 저절로 退散한다.”<sup>12)</sup>

라고 하였다. 그리고 七星請에서는

“北斗第一 子孫萬德 貪狼星君, 北斗第二 障難遠離 巨門星君, 北斗第三 業障消除 祿存星君, 北斗第四 所求皆得 文曲星君, 北斗第五 百障殄滅 廉貞星君, 北斗第六 福德具足 武曲星君, 北斗第七 壽命長遠 破君星君”<sup>13)</sup>

을 외우며 칠성을 청하였는데 이러한 칠성 각각에 대한 신앙내용은 桐華寺 七星閣의 七星名幀 등에 쓰여진 화기에서도 간혹 찾아 볼 수 있다. 이 밖에 「北斗七星護摩法」에서는 延命·除災·招富 등을 강조하였으며<sup>14)</sup> 「佛說北斗七星延命經」에서는 現世에 福을 얻고, 極樂世界에 태어나며, 魂魄이 편안하고, 영원히 공포가 없으며, 질병이 낫고, 六畜이 번성하며, 재난과 손실이 없고, 長命할 수 있게 하여 준다<sup>15)</sup>고 하였다.

이와같이 몇몇 경전에서 七星의 權能에 대하여 설하였는데 대체로 인간의 많은 재앙을 없애어 富貴와 福德을 얻도록 하고, 자손이 번성하게 하며, 수명을 연장시켜 줄 뿐 아니라, 전쟁 등 국가의 재난도 소멸시키어 평안토록 한다는 등 여러가지 신앙내용으로 믿어졌다.

## 2. 佛敎와 道敎의 七星信仰 比較

하늘에 들어서서 빛나는 빛을 발하는 日月星辰의 운행에 대하여 천문에 관심이 깊었던 古代 印度人들은 이것을 거의 神으로 숭배하였고, 한편 道敎에서도 일찌기 陰陽五行說을 성립시켜서 世間의 吉凶禍福은 별의 작용으로 인한 것이라고 믿었다. 그리고 佛敎에서도 이 도교의 설을 취하여 七星·九曜·十二宮·二十八宿 등을 主體로 해서 그 運行·光芒의 變化·盈虛에 의해서 人事의 일체를 점치곤 하였다. 따라서 불교와 도교의 칠성신앙은 많은 유사성을 찾아 볼 수 있다.

11) 北斗八星은 北斗七星에 輔星을 더한 것이다.

12) 『大正新修大藏經』 V20, 密敎部3, No. 1305, p.424.

13) 安震湖, 『釋門儀範』, 法輪社, 1975, pp.325-326.

14) 『大正新修大藏經』 V20, 密敎部3, No. 1310, p.457.

15) 『大正新修大藏經』 V20, 密敎部3, No. 1307, p.426.

佛敎經典에는「北斗七星念誦儀軌」·「北斗七星延命經」·「北斗七星護摩法」·「北斗七星護摩秘要儀軌」 등이 수록되어있고, 道藏에는「太上玄靈北斗本命延生眞經」·「北斗七元金玄羽章」·「北斗九皇隱請經」·「太上北斗二十八章經」 등이 실려있다. 이들 경전에서는 공통적으로 칠성이 壽祿貧富·生死禍福을 주관한다고 하였다. 또한 양교의 경전<sup>16)</sup>에서 함께 사람이 태어난 해의 간지에 해당하는 별인 本命星에 대하여 논하고 있다. 즉 子生人은 貪狼星, 丑亥生은 巨門星, 寅戌生은 祿存星, 卯酉生은 文曲星, 辰申生은 廉貞星, 巳未生은 武曲星, 午生은 破軍星에 해당되며 그 사람의 일체 길흉화복은 그 별의 지배하에 있다고 한다. 이밖에 불교경전에 太上老君<sup>17)</sup>등 도교적 용어가 보이는 것이나, 북두칠성의 도교적 명칭인 七元星君의 존명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 등으로 보아 불교의 칠성신앙에 미친 도교의 영향을 알 수 있다.

### 3. 七星信仰의 歴史的 展開

#### 1) 三國時代

삼국시대 우리의 조상들은 自然崇拜思想의 하나로 성신이 천신의 사자로서 그 명을 받아 인간의 壽福運命·幸不幸을 주관하는데 커다란 위력이 있는 것으로 믿었으며 이러한 성신 중에서도 계절과 시간을 알려 주는 북두칠성을 더욱 숭배하였다.

이것은 “高句麗 次大王 十三年(158) 春 二月에는 星孛(慧星)가 北斗에 나타났다.”<sup>18)</sup>든가, 新羅 金庚信(595~613)이 七曜의 精을 받은 고로 등에 七星文이 있으니 또한 매우 神異하다”<sup>19)</sup>는 등의 문헌기록을 차치하고라도 고구려 古墳壁畫에 그려진 북두칠성그림을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즉 약 80여기의 현존 벽화고분 중 21기에 星宿圖가 있으며 그 가운데 德花里1·2 號墳, 眞坡里4號墳, 德興里古墳 등 16기에 북두칠성이 그려져 있다. 이들 고분에는 북두칠성이 다른 별자리의 중심에 훨씬 크게 그려져 있어 당시 사람들에게 보다 강한 신앙의 대상이었음을 보여준다.<sup>20)</sup> 이러한 고구려의 전통은 고려의 고분벽화에도 계승되어졌다. 실례로 고려 神宗(1197~1204)의 무덤인 陽陵이나 恭愍王(1351~1374)의 무덤인 玄陵의 현실 천정에도 북두칠성이 어느 별자리보다 강조되어 있다.

이와같이 삼국시대에 칠성이 두드러지게 숭배된 것은 우리민족의 고유한 칠성신앙에 연유한 것도 있겠으나 佛敎와 道敎의 유입으로 인한 영향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sup>21)</sup>

16) 『大正新修大藏經』 V20, 密敎部, 「佛說北斗七星延命經」, 『道藏』, 「北斗九皇隱請經」, p.0342.

17) 安震湖編, 『北斗七星延命經』, 法性院, 1938, p.1.

18) 金富軾, 『三國史記』卷第十五, 高句麗本紀第三.

19) 一然, 『三國遺事』卷一, 金庚信條.

20) 趙善美, 「高句麗 古墳壁畫에 나타난 繪畫思想」, 『蕉雨黃壽永博士古稀紀念美術史學論叢』, 通文館, 1988, p. 805.

21) 徐慶田, 「韓國七星信仰을 통해 본 道·佛交涉關係」, 『韓國宗教』第10輯, 圓光大學校宗敎問題研究所, 1985, 10, p.53.

## 2) 高麗時代

고려는 국교를 불교로 하였던 만큼 불교가 매우 번성하였으며 왕과 국가의 除災招福을 위주로 하였으므로 많은 道場<sup>22)</sup>이 행하여졌다. 뿐만아니라 도교도 고구려의 경우 이상으로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형식·내용·공능을 갖춘 종교로 발전하여 도교적인 齋醮<sup>23)</sup> 특히 星宿齋祭가 많이 행해졌다.

여러 문인들이 작성한 칠성신앙관계의 道場文이나 醮禮文·青詞가 전해오고 있다. 즉「國卜北斗延命度厄道場文」·「北斗青詞」·「北斗下降醮禮文」·「王本命青詞」·「本命醮禮文」·「本命醮禮三獻文」·「北斗醮禮青詞」·「北斗解怪醮青詞」 등이 그것으로 주로 無病長壽·求福·消災·子孫繁榮·國家太平 등을 기원하고 있다.<sup>24)</sup>

道場이 승려를 중심으로 행해지던 불교의 의례라고 한다면, 醮祭는 도사를 중심으로 행해지던 도교의 의례이다. 그러나 毅宗23년(1169)에는 忠州 竹杖寺에서 초제를 봉행하였고,<sup>25)</sup> 同王6年(1152)과 23年(1169)에 北斗(星)를 內殿에서 醮祭하였으며,<sup>26)</sup> 毅宗16年(1162)에 왕이 陰陽秘祝說을 酷信하여 매양 行在所에 僧侶와 道士 수백인을 모아 항상 齋醮를 설하는 것에 대한 상소가 있었다.<sup>27)</sup> 또한 高宗17年(1230)과 20年(1233)에 내전에서 消災道場을 친히 설하였더니 星變이 가시었다고 하였으며<sup>28)</sup> 同王40年(1253)에, 친히 北斗(星)께 초제하였다<sup>29)</sup>는 등의 기록이 보인다. 이밖에 도교적인 醮禮文이나 青詞의 내용을 보면 法會·法壇·羅圖·超度·安駕·下界·正業·祈禱·因果·輪廻 등의 불교적인 용어가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여러차례의 초례나 도량의 設施 및 제문의 내용으로 보아 도교와 불교가 護國과 消災라는 목적아래 교섭이 반복되고 있음을 살펴 볼 수 있다.<sup>30)</sup>

위와같은 사실외에도 高麗藏經 秘密部에「北斗七星護摩法」·「佛說北斗七星延命經」·「北斗七星護摩秘要儀軌」·「北斗七星念誦儀軌」 등의 칠성에 대한 경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나, 七星道場이 행해진 것으로 볼 때 고려시대에 이미 불교내에 칠성신앙이 수용된 것을 알 수 있다.

22) 道場이란 佛道를 닦기 위한 장소로 일정한 구역 또는 나아가서 그 곳에서 진행되는 법회를 가리킨다. 따라서 법당내에서 진행되는 법회는 물론 법당과는 관계없이 진행되는 법회도 도량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대개는 密敎의 의식을 도량이라 하는데 갖가지 呪術을 조직적으로 의식화한 것이므로 토속신앙과 융합될 가능성이 많다.

23) 醮란 天地 및 境內山川에 대하여 宮의 뜰에서 道士가 壇에 술을 차려놓고 기도하는 도교의 제사이다. 이때는 쓰이는 文體와 文章을 青詞라고 하는데 이것은 青籐紙라는 청지에 朱字로 쓰기 때문이다.

24) 李奎報, 『東國李相國集』第 39卷 醮疏, 『東文選』第 115卷 青詞

25) 『高麗史』毅宗 23年己丑夏 4月條

26) 『高麗史』毅宗 6年壬申夏 4月條, 『高麗史』毅宗23年己丑春 五月條

27) 『高麗史』毅宗 16年 壬午條

28) 『高麗史』高宗 17年 庚寅 4月條, 『高麗史』高宗 20年 癸巳條

29) 『高麗史』高宗 40年 癸丑 12月條

30) 徐慶田, 「韓國 七星信仰을 통해 본 道·佛 交涉關係」, p.53.

### 3) 朝鮮時代

고려는 불교를 국교로 삼았으나 조선왕조는 유교, 그것도 주자학을 국교로 삼은 儒敎主義국가로 불교나 도교·전통적인 무속을 탄압하였으므로 여러가지 초제나 도량이 개설되지 못하였지만 북두칠성에 대한 신앙은 더욱 두드러진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즉 車天輅의 「五山說林」에 의하면 康獻大王(太祖)이 侍中으로 있을 때 七星계 정성으로 기도하여 三韓을 얻었다<sup>31)</sup>고 하였으며, 太宗 16년에 왕이 대사헌 李原에게 말하길 경배드릴 것은 북두칠성뿐 이라 하였고<sup>32)</sup>, 金時習은 楊子의 말을 인용한 후 북두를 공경하지 않을 수 없다고<sup>33)</sup> 하였다.

그러나 조선시대의 칠성신앙은 한문으로 된 유교 교양과 상관없는 부녀자나 서민들에 의해 주로 믿어져서인지 生子得男·長壽·所願成就의 내용으로 그 범위가 축소되어 갔지만, 여러 가지의 星神이 七星으로 일반화되어 감에 따라 모든 성신신앙의 핵심이 되었다.<sup>34)</sup> 이러한 현상은 각각 독립적인 신앙의 대상이 되었던 北極星·日·月·老人星·二十八宿 등이 七星佛畫에 모두 도설되는 것만 보아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시대 특히 후기에는 불교의 보편적인 신앙이 되어 많은 七星閣이 세워지고 七星佛畫의 조성이 성행하게 된다.

## Ⅲ. 朝鮮朝 七星佛畫의 形式 및 現狀

앞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고려시대에 칠성신앙이 불교내에 받아들여졌으므로 예배를 위한 칠성 불화도 반드시 그려졌을 것이다. 그러나 이 시기 칠성불화에 대한 기록이나 작품이 남아있는 것이 없어 어떠한 양식으로 그려졌는지 구체적인 실상을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우리나라 칠성불화에 대한 연구는 조선시대에 제작된 그림에서 시작할 수 밖에 없다.

그러면 현재까지 조사된 1541년부터 1910년까지의 칠성불화를 대상으로 자주 등장하는 구성원에 따라 제1형식에서 제 5형식까지 분류하여 대표적인 작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 1. 第一形式 〈그림 1〉

제1형식에 속하는 작품들은 조선전기 즉 壬辰倭亂 이전에 그려진 것으로, 후기 불화의 주요 구성원인 칠여래·칠원성군 등이 부각되지 않은 대신 본존인 熾盛光如來 및 그 좌우보처인 日光菩薩·月光菩薩을 중심으로 九曜·七星(七元星君)·十二宮·二十八宿 등 보다 많은 성중이 도설되는 형식이다.

치성광여래는 北極星을 불교에서 여래화한 것이고, 일광·월광보살은 해와 달을 보살화한 것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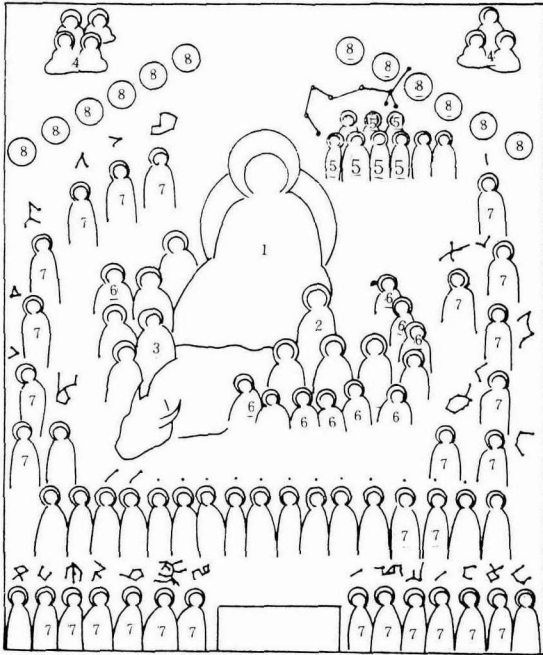
31) 『五洲衍文長箋散稿』卷九 二斗下降辨證說.

32) 『朝鮮王朝實錄』, 『太宗實錄』卷30, 十六年 五月 丙寅條.

33) 金時習, 『梅月堂全集』, 成均館大大東文化 研究院, p.228, 下右.

34) 徐慶田, 『韓國七星信仰을 통해 본 道·佛交涉關係』, pp.54-55.

다. 이 해와 달은 <表 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日曜(太陽)·月曜(太陰)로서 九曜의 일원이기도 하다. 十二宮은 태양의 1년 12개월의 운행경로인 黃道 중에 있는 12개의 성수궁을 말하는 것으로 <表3>과 같이 구성되어 있는데, 후기 칠성불화에서는 九曜와 더불어 보이지 않는다. 또한 二十八



◀<그림 1> 二形式

1. 熾盛光如來 (1)
2. 日光菩薩? (1)
3. 月光菩薩? (1)
4. 七如來? (7)
5. 七元星君 (7)
6. 九曜 (9)
7. 二十八宿 (28)
8. 十二宮 (12)

(隆慶三年銘 七星幀)

<表 2> 九曜의 構成

九 曜 (九 執)	七 曜 (七 政)	五 星	火 曜 (星)	熒惑星
			水 曜 (星)	辰 星
			木 曜 (星)	歲 星
			金 曜 (星)	太 白 星
			土 曜 (星)	鎮 星
		日 曜	太 陽	
		月 曜	太 陰	
	羅喉星	蝕 星		
	計都星	慧 星		

〈表 3〉 十二宮의 構成

該當月	宿 宮	現星座名
1月	(雙)魚宮	魚 座
2月	(白)羊宮	牡羊座
3月	(金)牛宮	牧牛座
4月	陰陽宮	雙子座
5月	(巨)蟹宮	蟹 座
6月	獅子宮	獅子座
7月	(雙)女宮	乙女座
8月	(天)秤宮	天秤座
9月	(摩)蝎宮	蝎 座
10月	(人)馬宮	射手座
11月	磨羯宮	山羊座
12月	寶瓶宮	水瓶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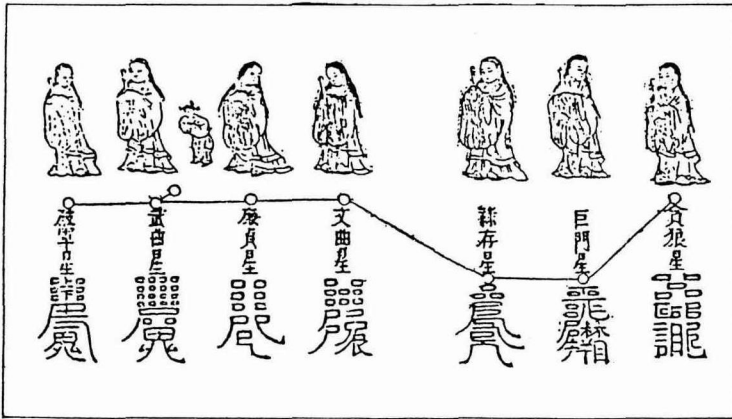
〈表 4〉 二十八宿의 構成

東 方 七 宿	昂 宿	南 方 七 宿	(七)星宿	西 方 七 宿	房 宿	北 方 七 宿	虛 宿
	畢 宿		張 宿		心 宿		危 宿
	角 宿		翼 宿		尾 宿		室 宿
	參 宿		軫 宿		箕 宿		壁 宿
	井 宿		角 宿		斗 宿		奎 宿
	鬼 宿		亢 宿		牛 宿		婁 宿
	柳 宿		氐 宿		女 宿		胃 宿

宿는 달의 운행경로에 있는 白道상의 28개의 성좌를 묶어서 이름붙인 것으로서 〈表 4〉에 보이는 것처럼 東西南北方 각 七宿 로 나누어 구분하기도 하며, 조선조 전기간의 칠성불화에 朝服을 입은 인물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형식으로 그려진 그림으로는 현재 嘉靖二十年銘七星幀(1541·日本 神戶 多聞寺 所藏), 隆慶三年銘七星幀(1569·日本 京都 觀智院 所藏) 과 조선 전기 칠성불화를 이해하는데 귀중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앞의 불화와 매우 유사한 구도·구성·형태를 보여주는 忠南 論山 雙溪寺 七星木板(1580·三星出版社博物館 所藏)등이 남아 있을 뿐이다.

◀ <그림2> 「佛說北斗七星延命經」의七星圖



1) 隆慶三年銘七星幀 <圖1>

隆慶三年己巳(宣祖 2년·1569年)에 제작된 이 불화는 크기가 가로 66cm·세로 85cm 크기의 작은 그림으로 붉은 布地에 섬세한 金泥線으로 묘사하였으며 각 부분마다 제존의 명자를 밝힌 화기가 있어 조선 전기 칠성불화의 구성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sup>35)</sup>

화면의 상단 중앙에서 피어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구름안에 칠성광여래를 중심으로 일광·월광보살 및 구요 등 여러 성증들이 타고 있고 그 주위를 십이궁·이십팔수·칠성·견우성·직녀성 등 많은 성수들이 거의 사각형을 이루며 둘러싸고 있다.

동심원을 여러 개 겹쳐 광명상으로 표현한 頭身光을 등지고 있는 본존은 머리 양쪽에 뿔이 있는 소가 끄는 二輪車 위 蓮華座에 結跏趺坐하고 있으며, 왼손은 腹部 앞에 올려 法輪을 들고 있으나 오른손은 들어서 앞을 가리키고 있다. 如來의 대좌 좌우에는 명칭이 붙어 있지 않은 7구의 보살상이 본존이 가리키는 방향을 향하여 合掌하고 있는데 이들 중 2구는 일광·월광보살이겠지만 나머지는 그 존명을 확인할 수 없다.

화면의 상단, 寶蓋를 중심으로 하여 사선으로 12궁이 배치되어 있으며 각각의 별자리를 상징하는 물고기·양·소·男女·개·사자 雙女·저울·전갈·활과 화살·새·병이 이중원 안에 그려져 있다. 이 12궁의 왼쪽 바로 아래에 “七星”이란 명칭과 함께 국자모양의 북두칠성별자리 및七星·輔星들이 서있다. 칠성은 조선 후기 칠성불화에 나오는 칠원성군과 달리 머리를 늘어뜨린 여인상으로 「佛說北斗七星延命經」<sup>36)</sup>에 그려진 모습 <그림 2>과 거의 같다. 또한 이 12궁의 위에는 구름을 탄 불좌상이 왼편에 3구, 오른 편에 4구 배치되어 있는데 이들을 후기 불화의 기본 구성원

35) 洪潤植, 「日本에 있는 朝鮮朝 前記佛畫」(II), 『古美術』, 韓國古美術商中央會, 1983.11, p.7.

武田和昭, 「大阪·寶積院藏의 星曼荼羅圖について-星曼荼羅圖의 一異形圖-」, 『佛教藝術』 190호, 毎日新聞社, 1990.5, p.106.

36) 『大正新修大藏經』 V20, 密教部3, No 1307, p.425.

인 칠여래로 보아야 할 지는 의문이다. 화면에 등장하는 여러 성수들 중 가장 상세히 그려져 있는 각 이십팔수 위에 그려진 별자리의 모양은 「七曜星辰別行法」<sup>37)</sup>에 나오는 것과 유사하다. 그러나 이 불화에서는 朝服을 입은 인물로 표현되었지만 경전에서는 기이한 괴물의 모습으로 표현되었으며 별자리의 모양도 조금씩 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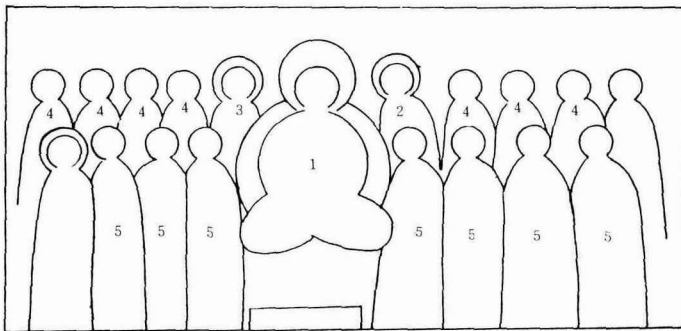
이와같이 경전에 묘사된 것과 유사할 뿐 아니라 白牛가 끄는 二輪車 위에 탄 칠성광여래가 여러 성중을 거느리고 大空을 순행하는 위용을 표현한 것이나, 본존이 가리키는 방향을 향하여 전체가 行列의 形을 이루고 있는 것 등은 중국의 칠성광여래도(圖 16)와도 흡사하다.

이처럼 이 칠성불화는 몇 점 남아 있지 않은 조선전기 작품일 뿐 아니라 여러가지 도상을 참고로 하여 한국적인 칠성불화의 방향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나온 매우 귀중한 자료라 하겠다.

## 2. 第二形式 〈그림 3〉

제2형식은 熾盛光三尊을 중심으로 북두칠성을 도설한 것으로 가장 간단한 구성을 보인다. 七如來는 각기 다른 여러가지 수인을 하고 있어 명칭이 붙어 있지 않은 한 그 존명을 구분하기 어렵다.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보통 일렬로 배치할 경우에는 왼쪽으로부터 순서대로 배치하나 본존의 좌우에 배치할 경우에는 왼쪽에 1·3·5·7 홀수를 배치하고, 오른쪽에 2·4·6 짝수를 배치한다. 七元星君도 역시 칠여래와 배열순서가 같고 공통된 수인이 없으며 대체로 중노년층의 조복을 입은 인물로 표현된다.

이 형식에 속하는 작품으로는 慶南 忠武 龍華寺 兜率庵 七星幀(1798), 京畿道 安城 七長寺 七星幀(1888), 京畿道 驪州 神勒寺 七星幀(1892), 全南 海南 大興寺 大雄寶殿 七星幀(1901) 등이 전한다.



◀ 〈그림3〉 二形式

1. 熾盛光如來 (1)
2. 日光菩薩 (1)
3. 月光菩薩 (1)
4. 七如來 (7)
5. 七元星君 (7)

(神勒寺 七星閣 七星幀)

37) 『大正新修大藏經』 V20, 密教部3, No 1309, pp.452-456.

## 1) 慶南 忠武 龍華寺 兜率庵 七星閣 七星幀 <圖 2>

嘉慶3年戊午(正祖22年, 1798年)에 畫士 旻基 義允 永珩이 그린 것으로 실제적으로는 6쪽으로 되어있으나 중앙탱을 세 칸으로 나누어 다른 각 탱과 마찬가지로 그렸으므로 8쪽 처럼 되어있다. 중앙탱의 크기는 가로 183.5cm, 세로 104cm이고 각탱은 가로 63cm, 세로 102cm이다.

중앙탱의 가운데에는 치성광여래 좌우에 하얀 연꽃을 들고 서있는양대보살이 삼각형구도를 이루고 있고 그 위에 다섯명의 성군이 집홀하고 서있다. 또한 각 七如來는 본존과 마찬가지로 원형 두신광을 지고 연화좌 위에 걸가부좌하고 있으며 그 양편에笏을 든 대여섯명의 성군과 별의 표식이 있는 검은 복건을 쓴 각 七元星君이 수직으로 좌우대칭을 맞추어 서있다. 각 칠여래는 본존처럼 우뚝 솟은 육계에 구슬모양 정상계주를 가지고 있으나 반달모양의 중간계주는 보이지 않으며, 각기 여러 가지 수인을 짓고 있고, 좁은 어깨에 비해 큰 상호 등 신체비례의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전반적으로 화면의 하단은 황토색이 배경을 이루고 있으나 상단은 검은 바탕에 赤·綠·黃色의 彩雲을 깔았다. 이 불화는 18세기 다폭식 칠성불화의 형식 및 양식을 보여주는 중요한 작품이다.

## 2) 京畿道 驪州 神勒寺 七星閣 七星幀 <圖3>

光緒18年壬辰(高宗29年·1892年)에 제작된 絹本着色畫로 連虛炳奎·錦華機炯·清□生沃·奉華·成唯 등이 그렸으며, 가로 220cm·세로 100cm의 옆으로 긴 그림이다.

중앙의 熾盛光如來를 중심으로 화면을 上下二段으로 나누어 상단좌우에는 日光·日光菩薩과 七如來 및 南極老人星을 배치하고, 하단에는 七元星君과 그 밖의 한 성군을 배치하여 불화의 기본 구도인 左右對稱을 이루고 있는데 水平構圖이어서 단조로와 보인다. 南極老人星 즉 壽星은 1800년대 칠성불화에 새로이 등장하는 도상이다. 수성은 인간의 生死를 관장하고 수명과 관계 깊다고 하여 널리 숭배되어졌다. 따라서 칠성불화의 구성원으로서 뿐만 아니라 道釋人物畫나 民畫등에서 단독으로 그려지기도 하는데 대체로 머리가 길고 키가 작은 노인의 모습이다.

중앙에 다른 인물들보다 훨씬 크게 설정된 본존은 여러 개의 원을 겹쳐 표현한 頭身光을 등지고 있는데 신광 내부를 방사형으로 가늘게 구획하고 채색해서 마치 몸에서 빛이 뻗어 나오는 듯한 효과를 내고 있다. 이것은 「大妙金剛大甘露軍擊利焰鬘熾盛光佛頂經」에 “몸에서 無量百千의 光明을 발한다”<sup>38)</sup> 라든가 「大聖妙吉祥菩薩說除災教令法輪」에 “몸의 여러 毛孔에서 大光明을 발한다.”<sup>39)</sup>라는 구절을 연상하게 하며, 이러한 신광의 모양은 이 시기 다른 불화에도 간혹 나타난다. 두부에는 반달모양의 中間髻珠가 있고 높이 솟은 肉髻에는 구슬모양의 큼직한 頂上髻珠가 있으며 여기에서 피어난 빛이 七如來의 머리 위로 심한 굴곡을 그리며 양끝을 향하여 뻗어가고 있다. 상호는 圓滿相이며 오른손은 가슴앞에 들어서, 왼손은 북부앞에서 엄지와 중지를 맞댄 印契를 하고 있다. 通肩의 붉은 佛衣에 녹색 內衣를 속에 바쳐 입었으며, 띠매듭이 있는 裙衣가 가슴까지

38) 『大正新修大藏經』 V19, 密教部2, No 965, p.339.

39) 『大正新修大藏經』 V19, 密教部2, No 966, p.343.

올라와 있는 것이 보인다. 발목에는 연꽃모양의 옷깃(侈絹)<sup>40)</sup>이 장식되어져 있고 범의의 하안 끝단에 꽃무늬가 그려져 있다. 또한 밑에서 피어난 파란 蓮華座 위에 걸가부좌하고 있으며 그 앞에 붉은 衣帶가 좌우대칭으로 늘어져 있다.

상단의 인물들은 모두 上半身만 드러내고 있는데 左右脇侍菩薩은 대부분의 조선후기 칠성불화에서 三角形 포치를 이루고 있는 것과는 달리 본존과 거의 일직선으로 배치되어 있다. 화면의 인물들은 本尊을 향하여 서 있으나 같은 여래격인 七如來만이 본존처럼 정면을 향해 서 있다. 하단의 七元星君은 冠戴朝服하고 笏을 들거나 자유로운 손 모양을 하고 서 있으며 상단 존상들의 거무스름한 피부와는 달리 白色으로 설채되어 있다.

인물들 사이사이에는 상단 인물들의 피부색과 비슷한 갈색의 구름이 있어 주조색을 이루고 있는 밝은 赤色이나 笏에 칠해진 金色에도 불구하고 전체 화면이 다소 어두워 보인다.

### 3) 全南 海南 大興寺 大雄寶殿 七星幀 <圖4>

光武5年辛丑(1901年)에 明應幻鑑·梵華閏益·禮藝尙奎·宗現·玟昊·允夏·尙昨 등이 제작한 것으로 가로 202cm·세로 197cm의 정사각형에 가까운 絹本彩色畫이다.

그림을 上下二段로 나누어 상단에는 삼각형 포치를 이루고 있는 熾盛光三尊을 중심으로 七如來·南極老人星을 좌우대칭되게 배치하였고 하단에는 동자 2구와 七元星君을 일렬횡대로 배치하였으며 이를 구름으로 구획지어 질서정연한 느낌을 준다.

여러 겹의 원으로 된 二重輪光을 등지고 걸가부좌한 치성광여래는 두 손을 복부 근처에서 포개어 엄지와 중지를 맞대고 金輪을 들고 있다. 이를 양 옆에서 협시하고 있는 일광보살과 월광보살이 들고 있는 하안 연꽃에는 각각 해와 달이 얹혀 있다. 치성광3존과 같은 연녹색 또는 암녹색 두광을 지니고 있는 七如來는 본존을 향하여 合掌하고 있는 側面觀으로 거의 일률적인 모습이지만, 七元星君의 손짓이나 쓰고 있는 冠의 모양 등은 다양하다. 이들 존상들이 모두 본존을 향하고 있어 보는 이의 視線을 본존쪽으로 집중시키는 효과를 주고 있다.

비교적 변화를 주기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본존·칠여래 등에서 보이는 송충이 털같은 눈썹, 칠원성군의 一모양 콧수염 등 인물표현이 상당히 도식화되어 있다. 또한 원색이 많이 사용되었으며 명도높은 藍色이 부분적으로 사용되어 불화의 고상한 품격을 잃고 있을 뿐 더러 線마저 경직되는 등 질이 매우 떨어지는데 이러한 현상은 1900년대 불화의 거의 공통된 특징이기도 하다.

### 3. 第三形式 <그림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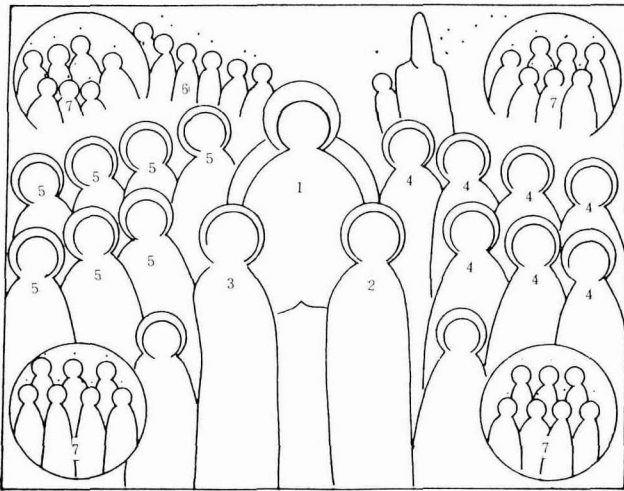
제3형식은 제2형식의 구성원에 二十八宿나 三台六星이 도설되는 형식이다.

三台六星은 북극성을 지키는 별로서 上台星(上台虛精 開德神君), 中台星(中台六淳 司空星君),

40) 如來의 結跏趺坐한 발목위에 표현된 옷깃장식은 예로부터 畫師들에 의하여 侈絹이라고 구전되어 내려왔다. (金鍾燮, 「韓國如來圖의 樣式에 대한 研究」, 東國大學校 教育大學院 碩士學位請求論文, 1984, pp.48-49.)

下台星(下台曲生 司祿星君)으로 되어있는데<sup>41)</sup> 각각 2개의 별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2명·2명·2명 짝지어 나타나는 것이 원칙이나 명칭때문에 혼란이 생겨서인지 3명·6명 또는 3명·3명등으로 그려지기도 한다.

이 형식에 속하는 작품으로는 大邱直轄市 把溪寺 聖殿庵 七星幀(1717), 全南 求禮 泉隱寺 七星幀(1749), 京畿道 南楊州 興國寺 七星幀(1868), 京畿道 安城 雲水庵 七星幀(1870), 京畿道 江華 淨水寺 七星幀(1878), 京畿道 南楊州 見聖庵 七星幀(1882), 서울 奉恩寺 七星幀(1886), 서울 彌陀寺 七星幀(1887), 全南 昇州 仙岩寺 七星幀(1895), 京畿道 南楊州 奉先寺 七星幀(1901), 忠南 鎮川 靈水庵 七星幀(1904) 등이 있다.



◀ <그림4> 三形式

1. 熾盛光如來 (1)
2. 日光菩薩 (1)
3. 月光菩薩 (1)
4. 七如來 (7)
5. 七元星君 (7)
6. 三台六星 (6)
7. 二十八宿 (28)  
(雲水庵 毘盧殿 七星幀)

1) 大邱直轄市 把溪寺 聖殿庵 七星幀 <圖 5>

大邱直轄市 把溪寺 二應庵 慈應殿에 봉안되었던 것으로 康熙五十六年丁酉(肅宗 43年, 1717年)에 體浚이 그린 絹本着色畫이며 가로49.6cm·세로 69.5cm의 작은 그림이다.

3형식의 구성원을 11폭으로 나누어 그렸다. 즉 보통 한 폭에 그려지던 치성광삼존을 각각 한 폭에 나누어 그리고, 이 밖에 각 七如來와 七元星君을 그린 七星各幀과, 三台六星 및 二十八宿를 그린 성군도를 배치하였다.<sup>42)</sup> 이와같이 특이한 형식을 보여줄 뿐 아니라 현재까지 조사된 다폭식 칠성불화들 중 년대가 가장 올라가는 것이나 현재 10폭이 도난당하고 熾盛光如來圖 1폭만 남아있다.

여러 겹의 동심원으로 된 二重輪光을 지닌 熾盛光如來는 비교적 건장한 체구에 비해 작고 가름

41) 李能和 輯述, 李鍾殷 譯注, 『朝鮮道教史』, 普成文化史, 1929, p.298.

42) 李有熙, 「朝鮮朝 後期の 佛畫 研究」, 弘益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請求論文, 1974, pp.46-47.

한 상호를 가지고 있다. 양손은 엄지와 중지를 걸쳐서 왼손은 가슴앞에, 오른손은 복부앞에 올리고 있다. 걸가부좌하고 있는 八角蓮華臺座 앞에는 如來의 白色 衣帶가 좌우대칭으로 내려 뜨려져 있고, 단순하게 도안화된 장식문양이 드문드문 그려져 있다. 배경에 있어 상단의 ⅔가량은 탁한 녹색과 흰색으로 된 특이한 형태의 구름으로 채워져 있고 그 아래 ⅓가량은 황토색으로 메워져 있어 하늘에서 지상을 내려다 보고 계시는 치성광여래를 묘사한 것같이 보인다.

## 2) 全南 求禮 泉隱寺 七星閣 七星幀 <圖6>

가로136cm·세로105cm의 絹本着色畫로 원래 乾隆十四年己巳(英祖25年·1749年)에 龍鶴庵에서 조성된 불화이다. 이것은 화기에 의하면 義兼·色敏·完印·好英이 그린 것인바 이들은 당시 全羅道一帶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던 화가들이다.

화면 안에는 제존상의 명칭을 적은 赤地墨書가 있는데 三段으로 나누어 상단에는 七如來와 七元星君을, 중단에는 熾盛光三尊과 內彌星·外輔星·天中樞星 그리고 28수 중 北方宿와 西方宿를, 하단에는 三台六星을 중심으로 좌우에 28수 중 東方宿와 南方宿를 배치하였다. 이 중 天子들이 쓰는 冕旒冠을 쓴 天中樞星과 四角幅巾을 쓴 內彌星·外輔星을 1800년대 칠성불화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紫微大帝와 그 左右輔彌星으로 보아야 할지는 의문이다.

熾盛光三尊은 큰 蓮瓣形 光背 안에 각각의 蓮華座를 밟고 서 있으며 또한 각각의 원형두광을 지니고 있다. 본존은 가름한 얼굴에 눈·코·입이 얼굴크기에 알맞게 묘사되어 온화한 표정을 보인다. 보통 치성광여래는 연화좌 위에 걸가부좌한 坐像으로 표현되나 여기에서는 독특하게 立像으로 도화되어, 왼손은 가슴께에 들어올려서 인상을 짓고 오른손은 내려뜨리고 있다. 日光菩薩은 연화가지를 들고 있고, 月光菩薩은 合掌한 채 본존을 향해 서 있는데 얼굴은 여성적이며 몸은 옷 속에 감춰져 굴곡이 명확하지 않지만 어깨에서 내려오는 몸전체의 굴곡이 유연하여 날씬한 맵시를 보여주고 크기는 본존과 비슷하다.

상단에 七如來 사이사이에 늘어 서 있는 七元星君은 머리를 가지런히 빗어내린 소년의 모습으로 앞가름마 위에는 별을 상징하는 듯한 하얗고 작은 구슬이 있는데 이러한 형상은 恩津 雙溪寺 七星幀 <圖9> 등에서 보이는 것처럼 1800년대 칠성불화에서 보이는 童子七元星君의 모습과 유사하다.

이들 성중들은 어두운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을 상징이라도 하듯이 검은 바탕에 그려져 있으며 구름으로 구획을 짓고 있어 질서 정연한 듯 하면서도 환상적인 느낌을 준다. 전체적으로 인물들의 신체비례가 알맞고 자연스러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부드럽고 탄력있는 필선을 보여줄 뿐 아니라 선홍색·황색·녹색 등의 중간색조를 적절하게 배합하여 밝고 명랑한 색상을 보여주는 우수한 작품이다.

## 3) 京畿道 江華 淨水寺 大雄寶殿 七星幀 <圖7>

光緒4年戊寅(高宗15年, 1878年)에 奉祝慧□堂·奉洽東□堂·作品□□堂이 제작한 것으로 가로

200cm · 세로148cm의 紙本着色畫이다.

화면의 중앙에 위치한 熾盛光如來를 日光 · 月光菩薩, 七如來, 七元星君, 二十八宿, 老人星 등이 마치 圓을 그리듯이 둥글게 에워싸고 있으며 반원의 상단공간에는 구름을 타고 날아오는 듯한 三台六星이 3명 · 6명 표현되어 있다. 이들 성중들은 위로 갈수록 작게 그려져 원근법적인 효과를 주고 있다.

치성광여래는 金輪寶界 熾盛光如來라는 명칭에 어울리게 뿔이 하나 달린 소가 끄는 二輪車 위에 結跏趺坐하고 있으며 왼손에 金輪을 들고 있는데 이러한 모습은 앞서 본 조선전기 칠성불화 중 隆慶三年銘七星幀〈圖1〉이나 恩津 雙溪寺 七星木板에 그려진 본존에서도 볼 수 있었다. 중존의 양옆에는 각각 해와 달의 표식이 있는 보관을 쓴 日光菩薩과 月光菩薩이 본존을 향하여 합장한 채 꾸부정하게 서 있다.

양대보살의 좌우에 서 있는 七元星君은 별의 표식이 있는 冠을 쓰고 笏을 들고 있으나 이 중 한 명은 冕琫冠을 쓰고 있으며, 또 다른 한 성군은 笏 대신 冊을 들고 있고 왼쪽 가장자리에 있는 성군은 수염이 바람에 날리고 있어 동적인 느낌을 준다. 이와같이 그 표현에 있어 조금씩 변화를 주었는데 이러한 양상은 七如來의 모습에서 좀 더 다양하게 나타난다. 즉 대부분의 칠성불화에서 칠여래는 거의 같은 모습으로 그려지는데 반하여 이 그림에서는 3명은 側面觀이고 나머지 4명은 正面觀이며, 手印도 제각기 다르고, 통견의 홍색 불의 끝단에도 녹색 또는 검은 색을 대는 등 변화를 꾀하고 있다.

색상 등이 조금씩 다를 뿐 이 불화와 거의 똑같은 그림이 見聖庵이나 奉恩寺 北極寶殿 · 彌陀寺 極樂殿 · 直指寺 등에도 남아있는데 필시 같은 草本을 대고 그린 것으로 추정된다.

#### 4) 全南 昇州 仙岩寺 三聖閣 七星幀 〈圖8〉

聖上即昨二十二年乙未(高宗32年 · 1895年)에 제작된 絹本着色畫로서 화면의 크기는 가로 166cm · 세로177cm이다.

정사각형에 가까운 이 그림은 上下二段으로 나누어 상단에는 중앙의 熾盛光如來를 중심으로 兩大菩薩 · 七如來 · 七元星君 · 二十八宿 · 三台六星 등을 불화의 진통에 따라 좌우대칭되도록 배치하고 하단에는 七元星君이 일렬횡대로 서 있다.

본존은 3~4겹의 원으로 된 二重輪光을 등지고 있는데 身光에는 金色 花紋이 가득 메워져 있으며, 蓮華座 위에 걸가부좌하고 있고 특이하게도 禪定印을 결하고 있다. 파란 두부의 중앙에는 中間鬚珠가 있으며 여기에서 피어난 오색 빛이 화면의 양끝을 향하여 水平曲線으로 뻗어 있다. 그 線上에는 사각巾을 쓴 三台六星이 좌우 3명씩 나뉘어 있으며, 이들 밑의 작은 원 안에는 머리를 틀어 올린 二十八宿가 14명씩 배치되어 있다. 치성광여래의 좌우에는 각각 해와 달의 표식이 있는 보관을 쓴 日光 · 月光菩薩이 서 있는데 이렇게 立像으로 묘사한 것은 여백을 메꾸는 효과이외에 본존의 어깨선에서 보살의 상부를 제한하므로써 3존이 삼각형의 안정된 짜임새를 이루게 한다. 또한 이러한 포치는 한쪽 손을 들어 본존을 가리키고 있는 보살의 손모양과 더불어 보는 이의

시각을 아래에게 집중하게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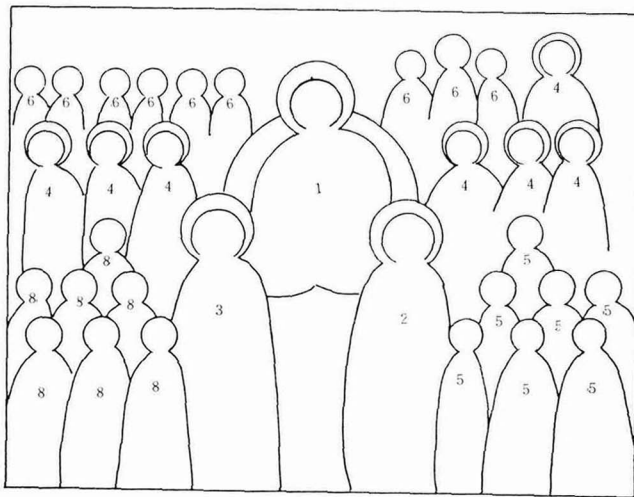
이들 양옆에 대각선(\ /)으로 함장하고 서 있는 七如來는 본존의 滿月面과 달리 달걀형의 긴 얼굴이나 본존의 頭部처럼 파란색으로 실채되어 신비스러운 느낌을 준다. 하단에 金冠朝服한 七元星君은 黑甲紗와 같은 검고 투명한 원형 두광을 지니고 있으며 여러가지 손모양을 짓고 있는데 신체 비례가 맞지않아 작아 보인다.

대체로 구도는 안정된 편이지만 인물들을 묘사한 圖式的인 線이나 色感에서 양식적인 퇴화를 엿볼 수 있다. 특히 화면을 가득 메운 구름의 황색조와 붉은색·녹색·남색의 색배합이 자연스럽지 못하여 시각적으로 산만한 色調和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점은 19세기 불화의 양식적 특성이기도 하다.

#### 4. 第四形式 <그림 5>

제4형식은 제2·3형의 구성원에 童子七元星君이 그려지는 형식이다. 童子七元星君은 경전이나 다른 불화의 화기에는 보이지 않고 通度寺 瑞雲庵 七星幀의 화기<sup>43)</sup>를 보면 그 명칭이 나타난다. 이것은 조선조 후기에 자식 낳기를 비는 신앙이 두드러짐에 따라 나타난 도상이라고 생각된다.

이 형식에 속하는 작품으로는 忠南 論山 雙溪寺 七星幀(1850·國立中央博物館所藏), 大邱直轄市 桐華寺 七星幀(1851·1857), 京畿道 加平 懸燈寺 七星幀(1861), 慶南 梁山 通度寺 瑞雲庵 七星幀(1861), 全南 昇州 松廣寺 七星幀(1867), 忠南 扶餘 無量寺 七星幀(1869), 全南 谷城 道林寺 吉祥庵 七星幀(1871·湖林博物館所藏), 慶南 晉州 青谷寺 七星幀(1877), 京畿道 水原 奉寧寺 七星幀(1878), 大邱直轄市 把溪寺 七星幀(1887), 忠北 中原 白雲庵 七星幀(1888), 慶南 忠武 龍華寺 七星幀(1897), 大邱直轄市 桐華寺 浮屠庵 七星幀(1900) 등 다수가 남아 있다.



◀ <그림5> 四形式

1. 熾盛光如來 (1)
  2. 日光菩薩 (1)
  3. 月光菩薩 (1)
  4. 七如來 (7)
  5. 七元星君 (7)
  6. 三台六星 (3,6)
  8. 童子七元星君 (7)
- (奉寧寺 藥師殿 七星幀)

43) 화면 오른쪽 위에 있는 화기: 紫微七元星君 北斗七元星君 內補彌星 外補彌星 三台六星 二十八宿諸大星君 童子七元星君

### 1) 忠南 論山 雙溪寺 七星幀 <圖9>

道光三十年庚戌(哲宗1年·1850年)에 제작된 絹本着色畫로 화면의 크기가 가로 33cm·세로 74cm인 여섯 폭 병풍으로 되어 있다.

병풍의 왼쪽으로 부터 첫째 폭엔 사각 진을 쓴 二十八宿 중에 14구가, 여섯째 폭에는 머리를 틀어 올린 28宿 중에 14구가 笏을 들고 서 있고, 셋째 폭에는 合掌한 七如來가 그려져 있다. 또한 네째 폭에는 熾盛光三尊이 거의 정삼각형에 가까운 구도로 배치되어 있고, 다섯째 폭에는 첫째 폭의 28宿와 같은 모습의 七元星君이 표현되어 있다. 이상의 폭에는 각 화면 안에 赤地墨書로 제존상의 존명을 적어 놓아 그 명칭을 알 수 있으나 둘째 폭에만은 그 명칭이 밝혀져 있지 않은데 이들이 바로 童子七元星君이다. 童子七元星君은 中·老年層의 인물 모습을 하고 있는 七元星君과 달리 어린아이의 모습을 하고있으며 칠여래나 칠원성군과 같은 祿色圓相光을 지니고 있다. 대부분의 도상들이 본존을 향하고 있으나 동자칠원성군만이 바깥쪽을 향하여 합장하고 서 있으며 머리에는 별을 상징하는 듯한 하얀 구슬이 없혀 있다.

도상들은 모두 火焰形 구름을 타고 있는 모습으로 구도상 대체로 숫자에 따라 세명일 때는 정삼각형, 7명일 때는 직각삼각형, 14명일 때는 누인 사다리꼴을 기본으로 한 것 같으나 인물배치 등에서 조금씩 변화를 주고 있다. 그러나 彩色에 있어서는 暗赤色과 暗綠色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조선후기 불화의 한 특징인 다양한 색채의 사용과는 거리가 먼 듯이 느껴진다.

### 2) 京畿道 加平 懸燈寺 極樂殿 七星幀 <圖10>

咸豐十一年辛酉(哲宗11年·1861年)에 河雲堂 者景, 月霞堂 世元, 中峯堂 慧□, 海溟堂 □ 確, 鐵牛堂 崔浩가 제작한 것으로 가로 189cm·세로 155cm의 그림이다.

중앙의 熾盛光如來를 중심으로 左右脇侍菩薩·七如來·七元星君·童子七元星君·三台六星·二十八宿·老人星 등이 좌우대칭을 이루면서 본존을 향하여 서 있어 觀者의 시선을 본존에게로 집중시키고 있으며, 화면의 위로 올라갈수록 인물들이 작게 그려져 遠近感을 보여준다.

熾盛光如來는 앞서 본 隆慶三年銘七星幀<圖1>이나 淨水寺 七星幀<圖7> 등에서와 같이 白牛가 끄는 二輪車의 八角蓮華臺座위에 걸가부좌하고 있다. 앞의 그림들은 모두 앞드려 있는 흰소를 靜的으로 표현한데 비하여 여기서는 여래가 정면을 향한 것과 상관없이 마치 구름 위를 걸어가는 것 처럼 動的을 표현하였는데 이는 唐 乾寧四年(897)에 제작된 燉煌出 熾盛光佛及五星圖<圖16>와 유사하다.

화면의 상단, 28수 아래에 있는 童子七元星君은 삭발한 동자승의 모습으로 중앙을 향해 합장하고 있으며 왼쪽에 4구, 오른쪽에 3구가 배치되어 있다.

본존의 상호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구불구불하면서 턱이 없이 긴 귀, 과장된弓형 눈썹, 두 줄기 기다란 선 끝에 2중으로 묘사된 코끝과 콧구멍, 돼지꼬리같은 두 줄의 콧수염, 나선형의 턱수염 등 인물표현이 도식화되어 있으며 지나친 호분을 사용하는 등 양식적 퇴화를 느낄 수 있는 19세기 불화이다.

### 3) 全南 昇州 松廣寺 觀音殿 七星幀 <圖11>

同治六年丁卯(高宗4年·1867年)에 龍院堂 奇行·就善·妙英이 제작한 紙本赤幀畵로 화면의 크기는 가로 109.5cm·세로 77cm이다.

가운데에 熾盛光三尊·二十八宿 등을 그린 中央幀을 모시고 좌우에 七如來·七元星君 등이 배치된 각 1幀을 모시어 모두 3幅으로 되어 있다. 화면 안에 金輪寶界熾盛光如來佛이란 존명과 七如來의 명칭이 적혀 있는데 칠여래는 왼쪽에 1·3·5·7, 오른쪽에 2·4·6 순위로 배치되어 있다. 오른쪽 불화의 칠여래 한자리에 해당하는 곳에 동자 칠원성군 7구를 작게 그려넣어 좌우대칭을 맞추고 있다.

중앙탱의 중심에는 치성광여래가 수미단 위 靑色 蓮華座에 걸가부좌하고 있고 수미단 좌우에는 兩大菩薩이 본존을 향한 側面姿勢로 걸가부좌하고 있어 이 화면의 중심을 이루며 三角構圖의 안정을 보이고 있다. 여러겹의 이중륜광을 등지고 있는 본존의 두부 중앙에는 반달모양의 중간계주가 있고, 당시 우뚝 솟은 육계와는 달리 구분이 안될 정도로 두리몽실한 낮은 육계 위에는 방울모양의 정상계주가 있으며, 정상계주와 귀있는데서 세갈래의 光線이 뻗어 나오고 있다.

양쪽 두 폭의 탕화는 화면을 상하2단으로 나누었는데 상단에는 七如來와 동자칠원성군을 배치하였고, 그 수직으로 아래에는 七元星君과 같은 모습의 輔星을 그려 8구가 배치되어있다. 두 폭의 여래 좌상은 모두 같은 모습으로 본존처럼 오른손은 가슴앞에서, 왼손은 복부앞에서 엄지와 중지를 맞대고 있으나 圓相光으로 된 二重輪光을 지고 있으며 육계도 다소 높게 표현되어있다. 七元星君과 輔星은 七如來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선으로 이루어진 이중륜광을 지고 있으며 遠遊冠을 쓰고 笏을 든채 의자에 앉아있다.

이 불화는 紅色바탕에 金泥로 線을 그리고 부분적으로 약간의 채색을 가한 것으로 彩色畵와 병행하여 꾸준히 이어져 내려 온 金線描樣式임을 알 수 있다. 즉 약간 광택이 있고 선명한 붉은 바탕에 金泥로, 그리고 顔面의 耳目口鼻·수염·눈썹·頭髮 등은 黑色으로, 顔面은 胡粉으로 나타내고, 이 밖에 如來·菩薩의 蓮華座와 寶蓋는 靑綠色으로 나타내어 赤地와 선명한 대조를 보이며 화면에 고운 액센트가 되고 있다.

안정된 構圖·선명한 色感·능숙하고 힘있는 筆線 등 이 시대 불화로는 秀作이라고 할 수 있다.

### 4) 慶南 忠武 龍華寺 七星閣 七星幀 <圖12>

建陽二年丁酉(1897年)에 性市·有佺·達順·瑞鶴이 제작한 것으로 中央幀의 화면의 크기는 가로 192cm·세로 68cm이며, 左右幀의 화면의 크기는 가로 35cm·세로 68cm이다.

이 불화는 실제적으로는 3幅으로 되어 있으나 중앙탱을 병풍같이 7칸으로 나누어 9幅처럼 되어 있다. 중앙탱과 좌측탱에는 熾盛光三尊·각 七如來·각 七元星君·각 童子七元星君이 삼각형 구도를 이루고 있고 우측탱에는 三台六位·南極老人星·紫微帝二位星君이 배치되어 있다.

金色테두리가 쳐진 二重輪光을 지니고 있는 熾盛光如來는 밑에서부터 뻗어 올라 온 형태를



道場寺 七星幀 (19세기), 慶南 梁山 通度寺 安養庵 七星幀 (1866), 全南 求禮 華嚴寺 金井庵 七星幀 (1872), 全南 順天 香林寺 七星幀 (1873), 全南 康津 無爲寺 七星幀 (1879), 慶南 河東 雙磎寺 國師庵 七星幀 (1879), 全南 求禮 華嚴寺 七星幀 (1897), 全南 高敞 禪雲寺 七星幀 (1900) 등 다수가 남아 있다.

### 1) 慶南 梁山 通度寺 安養庵 北極殿 七星幀 <圖13>

同治五年丙寅(高宗3年·1886年)에 제작된 것으로 화면의 크기는 中央幀이 가로 163cm·세로 136cm이며, 別畵는 가로 78cm·세로 108cm이다. 중앙탱 좌우로 7쪽의 七星各幀과 성중을 그린 1幀 등 모두 9幅으로 되어있으나 세 幅은 최근에 그려 모신 것이다.

각 탱은 모두 二段構圖를 이루고 있다. 먼저 중앙탱을 보면 상단에는 金輪을 든 熾盛光如來가 걸가부좌하고 있고 그 좌우에 日光·月光菩薩이 본존을 향하여 合掌하고 서있다. 3존의 바로 아래에는 冕旒冠을 쓴 紫微大帝가 金色 笏을 들고 의자에 앉아있으며, 그 좌우에 일광·월광보살의 寶冠처럼 해와 달의 표식이 있는 冠을 쓴 左·右輔弼星이 笏을 들고 서있다. 또한 이들 양옆의 위·아래에는 老人星과 七元星君이 둘씩 중앙을 향해 執笏 하고 서있다.

七星各幀 또한 二段構圖로 상단에는 須彌壇 위 蓮華座에 걸가부좌한 各 七如來가 있고, 하단에는 冠戴執笏한 各 七元星君이 의자에 앉아있으며, 상·하단 좌우에 네 성중이 하나씩 배치되어있다. 七星各幀은 중앙탱의 표현과 거의 유사하나 본존의 신광처럼 光線紋이 아니라 탁한 초록색에 좀 더 연한 초록색으로 잔잔한 花紋을 그렸고, 각기 독특한 手印을 하고 있다. 各 七元星君은 遠遊冠을 쓰고 있으며, 대제가 老年期의 인물모습이라면 星君은 中年期의 인물모습이다.

이들 幀들은 모두 하단에 畵記가 있고 특히 七星各幀의 경우 상단 좌우에 세로로 尊名을 赤地黑書로 적어놓아 명칭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맨 끝에 안치된 星衆幀만은 하단에 화기란을 만들어 놓았을 뿐 글을 적지않아 확실한 존명을 규명하기 어렵다. 이 또한 이단구도로 하단에 녹색 원형두광을 지니고 四角巾을 쓴 2명의 老人 좌우로 각 2명의 성군을 그리고 상단에 4명의 성군을 배치하여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물들은 마치 대화를 나누듯이 마주보고 있으며 모두 金色 笏을 들고 있으나 하단 양끝의 두 인물만이 허리띠를 잡고 있다.

背景에는 대부분의 七星佛畵에 보이는 瑞雲대신에 山水畵가 그려진 하얀 屏風이 쳐져 있어 구조색인 紅·綠色과 어울려 산뜻한 느낌을 준다.

### 2) 慶南 河東 雙磎寺 國師庵 七星閣 七星幀 <圖14>

光緒五年乙卯(高宗16年·1879年)에 妙英·一俊·印元·容善이 제작한 것으로 크기는 가로 228.5cm·세로 212cm의 정사각형에 가까운 큰 그림이다.

화면은 크게 2段으로 나눌 수 있는데 상단에는 熾盛光如來를 중심으로 兩大菩薩과 七元星君·

44) 이 불화에서는 중앙탱과 칠성별화에 각각 칠원성군이 그려져 있는데 이것은 주43)의 通度寺 瑞雲庵 七星幀 畵記에서 본 바와같이 北斗七元星君 과 紫微七元星君을 모두 표현한 것 같다.

七如來 등이 배치되어 있으며 하단에는 紫微三尊을 중심으로 三台六星·二十八宿 등 여러 성중이 도설되어 있다.

須彌壇위 青色 蓮華座에 결가부좌한 熾盛光如來는 오른손은 가슴 앞에 들어 엄지와 중지를 맞대고 있으며, 왼손은 대부분 腹部 앞에서 엄지와 중지를 맞대는 것과는 달리 왼쪽 무릎 위에 얹어 놓았다. 꼬리가 올라간 가는 눈, 지극히 작은 입, 구슬모양의 頂上髻珠 등 당시 불화의 양식적 특징을 잘 표출하고 있다. 이 밖에 붉은 通肩의 불의 끝단에만 보이는 花紋, 발목의 날카로운 풀잎 모양의 옷깃 장식 등도 이 당시 불화에 흔히 보이는 경향이다. 얼굴은 작고 긴 편이며 결가부좌한 좌세는 무릎너비가 좁아지고 사각형의 건장한 어깨에 상체가 길어져 신체의 비율이 어색하고 불안정한 자세이다. 본존을 정점으로 삼각형 포치를 이루고 있는 日光·月光菩薩은 綠色 圓形 頭光과 하얀 테두리가 쳐진 隋圓形 身光을 지니고 있으며 각각 해와 달의 표식이 있는 寶冠을 쓰고 있고 日光菩薩은 활짝 핀 연꽃을, 月光菩薩은 연꽃가지를 들고 있다.

이들 양 옆으로는 綠色 원형 두광을 지니고 별의 표식이 있는 寶冠을 쓰고 朝服한 채 본존을 향하여 사선을 이루며 서 있는 七元星君이 세 명씩 있다. 여기에 들어가지 못하고 한 칸 아래에 표현된 한 칠원성군은 우스꽝스러운 얼굴과 행동을 하고 있는데 이렇듯 戲化된 모습은 현재 松廣寺 觀音殿에 걸려 있는 廣遠庵 地藏幀(1879年)의 十王의 모습에서도 볼 수 있는 것으로 이 두 그림의 제작에 참여하였던 一俊이란 화사가 주목된다.

七元星君 위에 배치된 七如來는 여러가지 手印을 하고 있고, 연화좌 위에 결가부좌하고 있으며, 녹색 원형 두광과 하얀 테두리가 쳐진 원형 신광을 지니고 있는데 정상계주에서 뻗어나온 빛이 본존의 머리에서 뻗어나온 세 줄기 빛과 함께 화면 위로까지 뻗어 있다.

치성광삼존의 바로 아래에는 紫微大帝와 左·右輔弼星이 좀 더 작은 삼각형 포치를 이루고 있다. 본존과 마찬가지로 겹원으로 된 二重輪光을 지니고 있는 大帝는 遠遊冠을 쓰고 의자에 앉아 있는 바 이러한 모습은 앞서 본 通度寺 安養庵 七星幀〈圖13〉의 각 七元星君의 모습과도 유사하다. 兩大弼星은 圓相光을 지니고 있으며 四角幅巾을 쓰고 대제를 향하여 홀을 들고 서 있다.

검은 바탕의 전반에 깔려 있는 紅·綠·青色 꽃과 黃·綠色 彩雲 등으로 매우 화려하며 七如來의 光背·臺座·寶蓋나 자미대제의 身光 등에서 보이는 것처럼 색상에 많은 변화를 주고 있다. 즉 붉은색 옆에 같은 계열인 다홍색을 칠한다든지 녹색 옆에 연녹색을 칠하는 등 극도의 보색대비를 피하고 있어 세련된 色彩感覺을 느낄 수 있다.

### 3) 全南 求禮 華嚴寺 圓通殿 七星幀〈圖14〉

光武一年丁酉(1897年)에 出草文性·蓮波華印·片手文炯 등이 그린 것으로 가로 270cm·세로 182cm의 가로로 긴 大型畫이다.

화면의 2/3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상단과 나머지를 차지하는 하단의 二段構圖를 이루고 있다. 상단에는 熾盛光三尊과 七如來·二十八宿·三台六星·老人星, 多聞天王·廣目天王 등이 그려져 있고 하단에는 紫微三尊·七元星君·持國天王·增長天王이 도설되어 있다.

화면의 중앙에 크게 그려진 熾盛光如來는 당시 치성광여래의 보편적인 모습과 같으나 구슬모양의 큼직한 頂上鬘珠에서 피어난 하얀 연기가 곡선을 그리며 양끝을 향하여 길게 뻗어 있고 거기에는 양쪽에 세 개씩 둥근 별이 달려 있다. 본존의 좌우에는 綠色 圓相光을 지닌 日光·月光菩薩이 구름속에 가리워져 상체만 드러낸 채 각각 圓球모양의 해와 달을 안고 있으며 새모양의 寶冠을 쓰고 있다. 이 삼존을 둘러싸고있는 二十八宿는 각기 다양한 持物을 들거나 손짓을 하고 있으며 표정이나 행동도 매우 자유스러워 보이고 7구씩 구름으로서 구획을 짓고 있다. 이들 위에는 童子모습의 三台六星이 좌우에 세 명씩 배치되어 있고 이밖에 老人星 등이 그려져 있다. 역시 상체만 드러내 놓고 있는 七如來도 보살과 마찬가지로 녹색 원상광을 지니고 있으며 통견의 붉은 불의를 입고 본존을 향한 측면관으로 합장하고 서 있다.

본존의 수직으로 바로 아래에 있는 單瓣形 光背 안에는 紫微大帝와 左·右輔弼星이 서 있는데 대체는 다른 여러 존상들의 녹색 두광과는 달리 黑甲紗같은 透明光을 지니고 있으며 큰 笏을 들고 정면을 향하여 서 있다. 그 양옆에 冠戴朝服한 七元星君은 복장·冠·持物·손모양 등이 다채롭고 가장 인간적인 모습으로 마치 肖像畫를 대하는듯 하다.

화면의 네 귀퉁이에는 琵琶를 든 北方 多聞天王 (上左), 塔과 화살을 든 西方 廣目天王 (上右), 칼을 든 東方 持國天王 (下左), 龍과 如意珠를 든 南方 增長天王 (下右)의 모습이 보이는데 이러한 四天王像은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七星佛畫에서 가끔 등장하는 모티브이다.

화면 위에 파란 彩色을 하고 화면 사이사이에 흰 구름을 그리어 空間感을 자아내며, 黃·白色 구름은 暗赤色·暗綠色이 주조색을 이루어 어두어 보이기 쉬운 화면을 다소 밝게 보이게는 하나 산만한 構圖와 더불어 복잡한 분위기를 더해준다.

#### IV. 朝鮮朝 七星佛畫의 樣式的 變遷

朝鮮朝 七星佛畫는 크게 두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前期는 조선 초 (15세기 초)로 부터 壬辰倭亂 (17세기 중엽)까지 이고, 後期는 그 이후 조선조 말까지인 17세기 중엽부터 1910년까지이다. 조선 전기의 칠성불화는 현재 몇 점 남아 있지않으나 후기 작품들과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후기의 칠성불화는 현재 1700년대에 제작된 것은 세 건 밖에 조사되지않는데 반해 1800년대 특히 그 중반 이후에 그려진 작품들은 상당수가 전해지고 있으며 다양한 형식과 내용으로 전개되었다.

이 章에서는 전·후기 작품들이 樣式上 어떠한 차이를 보이며,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그러나 확실한 典據經이 없이 칠성불화의 出草를 화사들의 통례적인 방법으로 그렸으므로 많은 예외가 있는바 보편적인 것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構圖

조선조 칠성불화는 대부분 한 폭에 모두 그려지지만 3폭·6폭·8폭·9폭·11폭 등으로 나뉘어

그러진 경우도 많다. 七星의 배치방법은 일렬로 배치할 때에는 왼쪽으로 부터 순서대로 나열하지만 본존을 중심으로 좌우대칭으로 그릴 경우에는 十王 등 다른 불화의 예와 같이 向左側에는 1·3·5·7 홀수의, 向右側에는 2·4·6 짝수의 칠성상을 배치한다. 또한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七如來는 대체로 七元星君보다 위에 또는 좌측에 위치한다.

지금까지 조사된 조선전기칠성불화에서는 대체로 중앙의 熾盛光如來를 중심으로 많은 성중들이 거의 사각형을 이루며 둘러싸고 있으나 그 현존례가 많지않으므로 구도를 단정지을수는 없을 것 같다.

조선후기칠성불화 중 비교적 이른 시기에 그려진 것으로는 1717년에 그려진 把溪寺 聖殿庵 七星幀(圖5)과 1749년에 제작된 泉隱寺 七星幀(圖6)을 들 수 있다. 전자에서는 본존과 양대보살이 각각 한 쪽에 그려져 있고, 후자에서는 본존과 좌·우협시보살이 한 광배 안에 거의 일직선상에 배치되어있어 三尊이 거의 대등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두 보살이 정면을 보고 있는 중존을 향하고 있어 치성광여래에게로 시선을 모으게 한다. 천은사 칠성탱화에서 보이는 바와 같은 치성광 삼존의 수평적 포치는 1800년대의 작품인 神勒寺 七星幀(圖3) 등에서도 간혹 보이나, 1800년도 이후의 작품들은 대부분 1798년에 그려진 龍華寺 兜率庵 七星幀(圖2)에서 처럼 화면의 중앙에 조금 크게 설정된 본존의 두광 끝을 정점으로 좌우협시보살의 두광이 만나 이루는 선이 삼각형의 안정된 포치를 이루고 있고 이를 중심으로 도상들이 불화 일반의 좌우대칭을 엄격히 지키면서 둘러싸고 있다. 이러한 구도는 조선후기칠성탱 중 제2·3·4·5형식에 거의 보편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제5형식의 경우, 紫微大帝가 華嚴寺 金井庵 七星幀(그림6)에서 처럼 치성광삼존이 이루는 삼각형안에 배치될 경우에는 위와 같은 구도를 보이나 그렇지않은 때에는 通度寺 安養庵 七星幀(圖13)·雙磎寺 國師庵 七星幀(圖14)·華嚴寺 圓通殿 七星幀(圖15) 등에서의와 같이 불교적인 치성광여래와 도교적인 자미대제를 경계로 上下二段으로 구분된다.

## 2. 形態

熾盛光如來는 보통 녹색 또는 청색의 만개한 蓮華座 위에 結跏趺坐하고 있으며 오른손은 가슴 앞에 올려서, 왼손은 腹部앞에서 엄지와 중지를 맞대거나 왼손에 金輪(또는 寶輪)을 들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隆慶3年銘七星幀(圖1)에서는 오른손을 가슴 앞에 들어 올려 앞을 가리키고 있고, 泉隱寺 七星幀(圖6)에서는 오른손은 쪽 뺨어 밑으로 내리고 왼손은 가슴앞에 들어 엄지와 중지를 맞댄채 원형두광만을 지고 서있다. 이 밖에 禪定印을 결하든가 두손을 복부 앞에 모두 金輪을 들고 있거나 또는 왼손을 무릎 위에 올려 놓는 등 조금씩 차이가 있기도 하다.

본존 좌우의 日光菩薩과 月光菩薩은 해와 달의 표식이 있는 보관을 쓰고 연꽃을 들거나 함창한 채 원형두광을 지니고 있는 것이 통례이다. 그러나 華嚴寺 七星幀(圖15)에서는 각각 해와 달을 안고 있고, 大興寺 大雄寶殿(圖4)·奉先寺·龍華寺(圖12) 등의 칠성탱에서는 들고 있는 연꽃위에 각각 해와 달의 표식이 있으며, 仙岩寺 七星幀에서는 각기 안쪽의 손을 들어 본존을 가리키고 있

다.

七如來는 본존과 모습이 비슷하지만 側面觀일 경우는 달걀형의 가름한 얼굴형을 보이며 중존을 향해 합장하거나 여러가지 손모양을 하고 있다.

七元星君은 조선 전기 불화에서는 경전에 보이는 것과 같이 머리를 늘어 뜨린 여인상으로 표현 되어있으나 1700년대에 그려진 泉隱寺 七星幀〈圖6〉에서는 소년의 모습을 하고 각 七如來 옆에 서있고 龍華寺 兜率庵 七星幀〈圖2〉에서는 朝服을 입은 중노년층의 道人모습을 하고 있다. 그러나 1800년대에 제작된 칠성불화에서는 제2형식에서 처럼 중노년층 모습의 七元星君만 나타나기도 하고 제4형식에서와 같이 七元星君과 더불어 동자모습의 童子七元星君이 함께 그려지기도 한다. 이들이 함께 그려질 경우 각각 무리지어 나타나기도 하지만 桐華寺·道林寺 등의 칠성각탱에서는 각 칠여래를 중심으로 좌우에 배치되어 삼각형구도를 이루고 있다.

제5형식에 보이는 紫微大帝는 치성광여래의 수직으로 바로 아래에 배치되는데 冕旒冠이나 遠遊冠을 쓰고있기도 하며, 관을 쓰지않고 머리를 틀어올리기도 하였다. 또한 대개 笏을 든 立像으로 표현되나 完州 松廣寺 七星幀에서는 두 손을 포개어 의자에 앉아있고, 香林寺 七星幀에서는 두 손을 앞으로 모두어 하얀 보주를 들고 걸가부좌하고 있는 등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상에서 조선초 칠성불화에 등장하는 중요한 제존상의 형태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이 밖에도 三台六星, 二十八宿, 老人星, 左輔弼星, 右輔弼星 등 여러 도상이 있다. 조선전기칠성불화에서는 치성광여래의 주위에 여러 菩薩, 二十八宿, 十二宮, 九曜, 七星 등 많은 성중이 도설되나 후기 불화에서 처럼 日光·月光菩薩, 七如來, 七元星君이 부각되지않는다. 조선후기칠성불화 중 1700년대에 제작된 칠성불화에는 熾盛光三尊, 七如來, 七元星君, 三台六星, 二十八宿, 左·右輔弼星 등이 등장하며 1800년대가 되면 여기에 紫微大帝와 그 左·右輔弼星이 두각을 나타낼 뿐 아니라 童子七元星君·老人星 등 여러 도상이 새로이 나타난다.

### 3. 色彩와 筆線<sup>45)</sup>

1717년작인 把溪寺 聖殿庵 七星幀〈圖5〉은 佛衣의 짙은 赤色과 두광과 대좌의 짙은 綠色이 주조색을 이루어 강하게 대조되고 있으며 瑞雲과 身光에 보이는 흰색 섞인 綠色 등으로 전체적으로 탁하고 어두운 색감을 준다. 그러나 1749년에 제작된 泉隱寺 七星幀〈圖6〉에서는 다홍색·연분홍색·홍색 등 붉은 계열이 많이 쓰여 화면 전체에 따뜻한 붉은 기운이 감도는 것을 느낄 수 있으며 밝고 고운 중간색조를 사용하여 부드러운 느낌을 준다.

1800년대에 제작된 칠성불화들은 雙溪寺 國師庵 七星幀〈圖14〉과 같이 극도의 보색대비를 피하여 세련된 색채감각을 보이는 것도 있으나 대부분 주조를 이루고 있는 赤色과 綠色이 짙어져 강한

45) 조선전기 칠성불화는 현재 전해지는 작품이 많지않고 그나마 국내에 남아있는 것이 없으므로 그 색채와 필선은 다음 기회에 논하기로 한다.

대비를 이루며 중간색이 아닌 원색을 많이 사용하여 질적으로 타락하게 된다. 특히 명도높은 藍色이 부분적으로 사용되어 고상한 품격을 떨어뜨리는데 그래도 이시기 대다수의 칠성불화에서는 푸른 공간에 彩雲을 깔아 화면을 다소 부드럽게 함은 물론 天上世界를 표현하고자 한 것 같으나 龍華寺 七星幀 <圖12>에서는 많은 여백을 藍色으로 채워 그 품격을 크게 잃고 있다. 이와같은 색채면에서의 질적인 저하는 1900년대에 제작된 칠성불화에 이르면 더욱 심각해진다.

한편 筆線에 있어 1700년대의 작품에서는 고식화된 선이 나타나기는 하나 아직은 탄력있고 섬세한 필선을 보여준다. 1800년대 작품들은 필선에 의도적인 강약은 표현되어 있지만 이미 힘에 부치고 흘러내리는 선으로 筆力이 떨어지며, 이러한 현상은 1900년대가 되면 더욱 두드러지는데 필선은 두터운 채색에 가리어져 그 중요성을 잃어버리며 선의 표현이 둔화되고 경직화된다. 그러나 필선의 변화를 가장 잘 엿볼 수 있는 線描樣式으로 된 昇州 松廣寺 七星幀 <圖11>은 19세기 불화 중에서는 보기드물게 능숙하고 힘있는 필선을 구사하고 있다.

## V. 朝鮮朝 七星佛畫의 意義

이상에서 조선조 칠성불화의 形式 및 樣式的 變遷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이제 이 칠성불화가 佛敎繪畫史에서 차지하는 의의를 밝히보고자 한다.

첫째, 조선시대 전기간에 칠성불화가 널리 그려져 無病長壽나 求福 및 生子得男 등을 비는 민중들에게 예배처를 마련하여 큰 위안이 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三政의 문란·外勢의 위협 등으로 사회가 혼란했던 19세기에 많은 칠성각과 칠성불화가 조성되었음이 주목된다. 19세기 칠성불화는 이전시대에 비해 질적으로는 떨어지지만 민간신앙적 내용과 더불어 일반 민중들에게 훨씬 더 친근감을 주지않았나 한다.

둘째, 우리나라의 七星圖 중에 종교적 기능을 갖춘 것으로 七星佛畫와 七星巫神圖를 들 수 있는데 이 두 칠성도의 비교 연구를 통하여 그 의의를 찾아 볼 수 있다.

巫敎 또는 巫俗은 우리나라 宗敎史의 중추를 이루고 있는 민족고유신앙이나, 이 무교조차도 중국의 황하연안을 중심으로 일어난 道敎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도교의 원모습은 한국의 무교와 똑같은 자연발생적인 신비주의 비밀종교였다. 따라서 한국의 무교와 도교는 흡사할 뿐만아니라 서로가 신앙제례의 내용을 주고 받았으며 한국의 무속은 도교의 道藏 속에 들어있는 많은 神과 그에 대한 儀式·思想 등을 받아들였다.<sup>46)</sup> 그러나 한국의 무교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준것은 佛敎로 土着化하는 과정에서 固有信仰과 매우 두드러지게 습합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불교는 또 다른 神像을 동반하게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의 무속신앙에 영향을 주어 巫神畫(巫俗畫)의 출현을 가져왔다.<sup>47)</sup> 이와같은 영향관계하에서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칠성불화와 칠성무신도가 그려지게 된 것이다.

46) 金哲淳, 「한국 미술의 깨달음 과 생명」, 『空間』 133호, 1978, p.78.

47) 崔聖熙, 「韓國의 佛敎와 巫神畫에 대한 研究」, 梨花女子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請求論文, 1979, p.42.

七星佛畫와 칠성무신도는 둘다 族子の 형태로 되어있으며 赤色을 기본으로 하여 여기에 青色·黃色·白色·黑色·綠色 등의 물감이 보조로 사용된 彩色畫라든가 冠戴朝服하고 笏을 든 七元星君의 모습, 구름으로 채워진 공간처리 등 상당한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칠성불화는 熾盛光三尊·七如來·紫微大帝·左輔弼星·右輔弼星·七元星君 외에 二十八宿·三台六星·老人星 등 많은 존상을 등장시키고 있으며, 光背·臺座 등 존상의 존엄성을 나타내주기 위한 장식이 있고, 가로 200cm내외·세로 50cm내외의 大型畫로 (물론 이보다 훨씬 작거나 큰 것도 있다.) 畫筆이 정교하고 섬세하여 전국적으로 일정한 양식의 통일성을 보이고 있다. 한편, 七星巫神畫는 七星佛畫 중 직접적인 연결이 있는 七元星君 만을 따로 떼어 독립시켜놓은 듯하고, 대개 가로 60cm내외·세로 110cm내외의 小形畫로 동일하고 거친 굵은 선으로 자유롭게 표현하고 있으며, 간단한 구도는 생략적인 면을 보이는 등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칠성무신도도 칠성불화 못지않게 시대가 올라간다. 즉 고려시대인 13세기에 李奎報가 남긴 시귀절<sup>48)</sup>에 의하면 이미 무당집에 彩色 七星巫神圖가 벽에 걸려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현재 그 시기의 작품이 남아있지 않고 조선시대에 그려진 그림도 후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작품이 몇점 남아있을 뿐이지만 불화가 무신도에 미친 영향이나 巫·佛·道教의 습합관계 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세째, 中國의 熾盛光如來圖나 日本의 北斗曼荼羅와의 비교·연구라는 관점에서의 의의이다.

중국의 경우, 현존하는 치성광여래도는 唐 乾寧四年(897)에 제작된 敦煌出絹本畫 중 1폭과 최근 山西省應縣의 木塔에서 발견된 遼代 麻紙本木版印刷圖 및 敦煌第61窟洞口部 南壁의 壁畫<sup>49)</sup>와 보스턴 美術館소장의 元代 掛幅 등 몇 점되지 않는다. 이와같이 그 현존 레가 희귀할 뿐 아니라 9세기 말에서 14세기에 걸쳐 그려진 것이므로 우리나라 朝鮮朝 七星佛畫와의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어느정도의 공통성을 찾아 볼 수 있다.

大英博物館 소장 敦煌出絹本畫(圖16)는 白牛가 끄는 二輪寶車에 앉아있는 熾盛光如來를 중심으로 五星이 둘러싸고있어 五彩의 구름을 타고 본존이 가리키는 방향을 향하여 한 단체가 運行하는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치성광여래에서 왼쪽으로 돌려, 婦形으로 손에 종기와 붓을 들고 있는 辰星(水曜), 鄉相으로 猪冠을 쓰고 손에 華盤을 들고 있는 歲星(木曜), 婆羅門形으로 牛冠을 쓰고 錫杖을 쥐고 있는 鎮星(土曜), 外道形으로 驢冠을 쓰고 四手에 兵器刀刃을 잡고 있는 或星(火曜)이 배치되어있는데 이러한 모습은 「七曜攘災決」이나 「梵天火羅九曜」등의 경전에 도설된 형상과

48) 丹青滿壁畫神像 七元九曜以標額 星官本在九霄中 安能從汝居汝壁 (李奎報, 『東國李相國集』卷二 古律詩 老巫篇)

49) 松本榮一은 이 벽화가 송초 이전으로 올라가지 않는다고 보았으며 (『敦煌畫の研究』, 圖像篇, 東方文化學院 東京研究所刊行, 1937, p.340), Roderick Whitefield는 북송 초기인 10세기 전반에 제작된 것 (監修 大英博物館, Roderick Whitefield 편집·해설, 上野アキ譯, 『西域美術』卷1 〈敦煌繪畫I〉, 1982, p.320) 이라고 하였으나 이 둘 앞에 목조 불당이 세워지고 “皇慶寺”라고 명명되었던 元의 皇慶年間 (1312-1313)에 그려진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敦煌文物研究所篇, 『中國石窟敦煌莫高窟』五, 平凡社, 1982.12, pp.235~236)

거의 일치한다<sup>50)</sup>

敦煌第61窟洞口部南壁畫 역시 용무늬 깃발을 휘날리는 二輪寶車에 앉아 오른손에 金輪을 굴리고 있는 치성광여래를 중심으로 九曜가 둘러있으며 이 行列의 위쪽에는 二十八宿·十二宮의 星座圖가 배치되어 있다.

한편 日本의 경우 平安時代 이래로 北斗曼荼羅 (法隆寺本 久米田寺本 御物本 등), 妙見曼荼羅 (『別尊雜記』所載圖), 終南山曼荼羅 (道隆山本 松尾寺本), 唐本北斗曼荼羅 (東京藝大本 등) 등 여러 종류의 星曼荼羅가 그려졌다. 이 중에는 大阪·寶積院所藏 星曼荼羅(14세기 초)와 같이 소가 끄는 수레를 탄 치성광여래가 九曜, 十二宮, 二十八宿·七星 등을 거느리고 순행하는 위용을 그린 것도 있다.<sup>51)</sup> 이와같이 중국이나 일본 불화에 보이는 치성광여래의 車行像, 白牛·十二宮의 星座圖 표현, 본존이 가리키는 방향을 향해 전체가 이동하는 모습 등은 우리나라 불화와 다소 유사하지만 조선조 칠성불화에 巫·佛·道敎의 도상이 모두 함께 표현된 것이나 인물 묘사, 여러 幅으로 그려진 것도 있는 등 크게 차이가 난다. 조선조 칠성불화야말로 우리 민족의 사상·풍속·생활 등에서 기원하여 그려진 가장 한국적인 불화의 하나로 佛敎文化圈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독특한 그림인 것이다.

## VI. 맺음말

이제까지 우리나라 칠성불화로서 작품을 남기고 있는 조선시대의 칠성불화에 대한 조성배경 및 형식·양식적 특성과 그 의의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長壽나 求福·生子得男 등을 비는 七星信仰은 삼국시대 이래로 諸星神信仰 속에 포함되어 있던 우리 민족의 고유한 민간신앙의 하나였던 것인데 고려시대 혹은 그 이전부터 도교의 醮祭에서 빈번히 나타났던 칠성을 불교에서도 받아들여 민중의 신앙에 응하였다. 특히 1800년대 이후 사회적 혼란 속에서 불교신앙이 일반민중의 고유신앙체계와 더욱 밀접한 관련을 갖게되면서 칠성신앙은 불교에서 매우 활성화되었고 따라서 많은 칠성각과 칠성불화가 만들어졌다.

조선조 칠성불화는 자주 등장하는 구성원에 따라 다섯 형식으로 나눌 수 있다. 조선 전기 칠성불화는 비록 그 현존 례가 적기는 하나 주로 제1형식에 국한되는데 비해, 후기 칠성불화는 제2형식에서 제5형식으로 분류될뿐 아니라 여러 쪽으로 나뉘어 그려지기도 하는 등 다채롭게 전개됨을 볼 수 있다.

이 시기의 칠성불화는 上壇幀畫 보다는 양식적으로 그 질이 다소 떨어지나 당시 민간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던 도교적 민간신앙적 요소가 불교와 합쳐져 한국적인 불화로서의 독자적인 한 장르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50) 「七曜攘災決」, 『大正新修大藏經』 V21, 密敎部4, No. 1308, pp.426-427, 도상참조.

「梵天火羅九曜」, 『大正新修大藏經』 V21, 密敎部4, No. 1311, pp.459-462, 도상참조.

51) 武田和昭, 上掲論文, pp. 90-116



〈圖 1〉隆慶三年銘七星幀  
(1569, 日本 京都 觀智院所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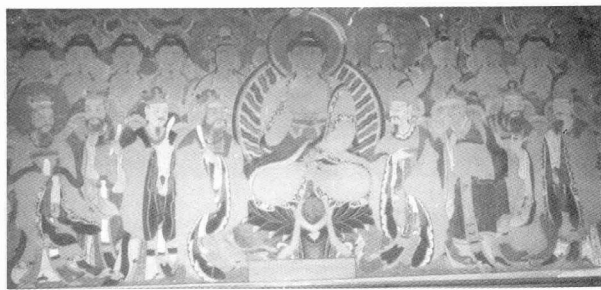
〈圖 2-1〉忠武 龍華寺 兜率庵 七星閣 七星幀 (1798) 中央



〈圖 2-3〉右側



〈圖 2-2〉左側



〈圖 3〉京畿道 驪州 神勒寺 七星閣 七星幀 (18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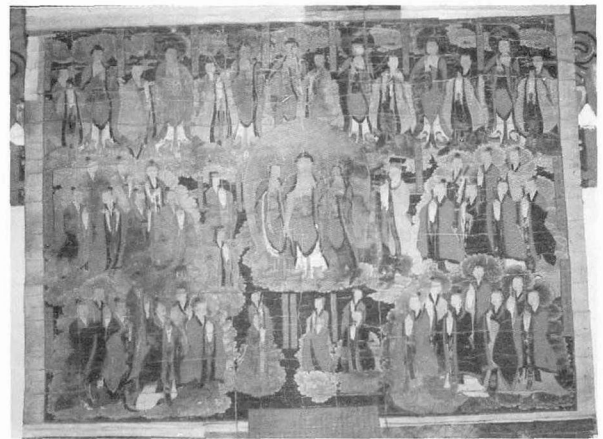
〈圖 4〉全南 海南 大興寺 大雄寶殿 七星幀 (1901)



〈圖 5〉大邱直轄市 把溪寺 聖殿庵 七星幀(1717)



〈圖 7〉京畿道 江華 淨水寺 大雄寶殿 七星幀 (1878)



〈圖 6〉全南 求禮 泉隱寺 七星閣 七星幀(17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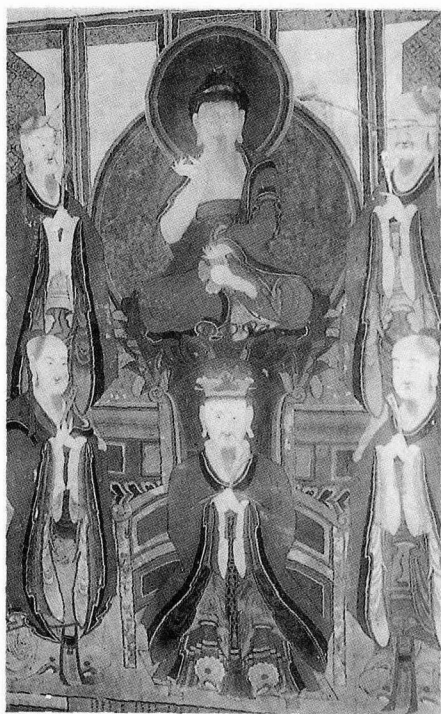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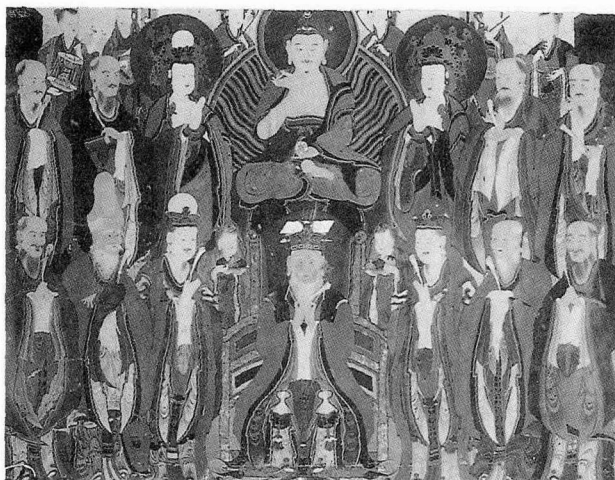
〈圖 12〉慶南 忠武 龍華寺 七星閣 七星幀 (1897)



〈圖 13-2〉運意通證如來佛 北斗第一貪狼星君



〈圖 13-3〉光音自在如來佛  
北斗第二巨門星君



〈圖 13-1〉慶南 梁山 通度寺 安養庵 北極殿 七星幀 (1866)



〈圖 13-4〉金色成就如來佛北斗第三祿存星君



〈圖 13-5〉廣達智辨如來佛 北斗第五廉貞星君



〈圖 13-6〉星衆



〈圖 14〉慶南 河東 雙磎寺 國師庵 七星閣 七星幀(1879)



〈圖 15〉全南 求禮 華嚴寺 圓通殿 七星幀 (1897)



〈圖 16〉燉煌出 熾盛光佛及五星圖 (897, 大英博物館所藏)